

중국 문제를 둘러싼 1930년대 일본 해군의 대외 인식

오사와 요시히사 (주오대학)

서론

1936(쇼와 11년)년은 일본이 국제연맹과 워싱턴·런던 해군 군축조약에서 탈퇴함에 따라 새로운 외교 정책을 모색하던 해였다. 그러나 히로타 고키 내각에서 결정한 '국책의 기준', '제국외교 방침'으로 대표되는 일본의 새로운 외교정책은 1937(쇼와 12년)년에 발발한 중일 전쟁에 의해 파탄될 수밖에 없게 된다.

본 원고에서는 일본 외교가 이와 같이 변해 가는 중일전쟁 발발 전후기에 초점을 맞추고 그 중에서도 일본해군이 중국 문제를 중심으로 동아시아 정세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가 하는 점에 대해 해명을 시도하고자 한다.

중일전쟁 발발 이후의 일본해군의 정치적 동향과 대외 인식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아이자와 기요시 씨¹⁾와 가사하라 도쿠시 씨²⁾, 데시마 야스노부 씨³⁾에 의해 해명되어 왔다. 그러나 한편으로 중일전쟁 발발 이전의 일본해군의 동아시아 정세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충분한 해명이 이루어져 왔다고는 할 수 없다. 히구치 히데미 씨는 1910년대부터 중일 전쟁기까지의 해군의 대중정책에 대해 해명을 시도하여 해군의 중국 정책은 미국과의 전쟁에 대비해 중국 서남지방 및 남중국해를 자급자족권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 것이었다고 했다⁴⁾. 고이소 다카히로 씨는 중국문제를 통한 해군의 영미(英米)관에 대해 해명하였는데 중일전쟁기의 해군은 미국의 문호개방·기회균등주의를 이해했으며, 미국과 영국을 이용하여 중일전쟁의 해결을 도모하더라도 미국의 미일 통상항해조약의 폐기 통보와 미국과 영국과의 관계 긴밀화에 의해 지금까지의 낙관적인 영미관은 수정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고 했다⁵⁾. 그러나 이들 연구에서는 중국 문제에 관한 개별 사안에 대한 해군의 대외 인식을 밝히고 있으나 1930년대 중반을 통한 해군의 대중국 인식에 대한 연속성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중일전쟁 확대에 해군의 대중국 인식이 미친 영향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원고에서는 중일전쟁 전후기의 일본해군이 중국 문제에 대해 어떤 대외 인식을 갖고 있었는지를 밝히는 동시에 그것이 중일전쟁의 확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하는 점에 대해 해명하고자 한다.

1. 중국 문제를 둘러싼 일본 해군의 동아시아 정세 인식

1931(쇼와 6년)년 9월 18일의 만주사변부터 1933(쇼와 8년)년 3월 27일의 국제연맹 탈퇴 통지에 이르는 일련의 동아시아 정세의 변화에 의하여 일본을 둘러싼 국제 환경은 큰 변화를 보였다. 미국을 가상 적국으로 하는 일본 해군에게도 동아시아 정세의 변화는 중대한 관심사였다. 이러한 동아시아 정세 속에서 해군이 특히 주목했던 것은 화남 지방 미국 항공세력의 진출이었다. 군령부가 작성⁶⁾하여 1933년 10월 3일 내각에 오스미 미네오 해상(海相)이

1) 相澤淳『海軍の選擇』(中央公論新社、2002年)、同「日本海軍と日中戦争」(黄自進ほか編著『〈日中戦争〉とは何だったのか』中央公論新社、2017年)
2) 笠原十九司『日中全面戦争と海軍』(青木書店、1997年)、同『海軍の日中戦争』(平凡社、2015年)
3) 手嶋泰伸「日中戦争の擴大と海軍」(『年報日本現代史』第22号、山川出版社、2017年)
4) 樋口秀實『日本海軍から見た日中關係史研究』(芙蓉書房出版、2002年)
5) 小磯隆廣『日本海軍と東アジア國際政治』(錦正社、2020年)
6) 「昭和八年～昭和九年海軍中將岩村清一日記」(防衛省防衛研究所、①中央一日誌回想—768)昭和8年

제출한 '국제정세에 대한 국방상의 소견'⁷⁾에서는 '해군으로서 국방상 최대 관심인 미국의 최근 태도를 보니 미국이 경제적 난국을 겪고 있음에도 조약 한도가 목표인 함선 급조 계획을 착실히 실현 또는 남지 방면에 대한 미국 항공 세력의 진출, 미국 서해안 근거지 확충에 전 함대의 태평양 집중 및 배치 등 제국에 대한 노골적인 태도를 표현해'라고 언급하여 미국이 화남 지방에 항공세력을 진출시키는 것을 신규 건함 계획, 함대의 태평양 집중배치와 동등한 위협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무렵 미국 및 독일 자본에 의한 민간 항공 사업의 중국 진출이 활발해지고 있었다⁸⁾. 미국은 중국에서 항공사업 권익을 확대하고 있었던 것이다.

일본해군의 대미 작전방침의 기본은 태평양을 횡단하여 일본에 침략할 미 함대와 결전을 벌이는 점감요격작전이었다. 그러한 작전 구상을 갖고 있는 해군에게 태평양 방면이 아닌 남중국해 방면으로 미국의 군사적 위협이 출현하는 것은 대미 작전 방침의 뿌리를 흔들 수도 있었던 것이다. 이를 위해 군령부 제1부 전쟁지도반장인 다유이 미노루 대령은 1934(쇼와 9년)년 2월 22일 '미국항공세력의 중국 진출 저지와 당국 세력 강화에 대한 방안'⁹⁾이라는 문서를 작성하였고 광둥 방면의 미 항공 세력 진출 저지와 일본 항공 세력을 중국에 진출시키는 중요성을 설파했다.

1936년이 되자 중국에서는 항일 테러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게 된다. 특히 일본해군이 권익과 거류민 보호를 책임지고 있던 중국 민중에 의한 일본인 살해 사건인 청두 사건(8월 24일)과 북해 사건(9월 3일)은 중국을 향한 해군의 자세를 강화시켰다. 9월 24일 군령부는 '중국 시국 처리 방침'¹⁰⁾을 만들어 '속히 중국 응징의 국가적 결의를 확립'하는 자세를 나타낸다. 이를 뒤인 26일에는 군령부, 해군성 간에 군무국 제1과장·호시나 겐시로가 기안한 '중국 시국 처리 방침각'¹¹⁾이 오고 갔으며 '속히 중국 응징의 국가적 결의를 확립하고 특히 육군에 대해 속히 해군과 동일 보조를 집행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목표가 되었다. 해군은 육군의 화북 분리 공작에 대해 비판적이었지만¹²⁾ 그렇다고 중국에 대해 유화적인 자세로 임하려 했던 것은 아니었다.

2. 외교 정책의 전환과 일본 해운의 영미관

1936년 8월 7일 5인 장관회의에서 결정된 '국책의 기준', 4인 장관회의에서 결정된 '제국 외교 방침'은 군축조약 체제 및 국제연맹 이탈에 따라 책정된 일본의 새로운 외교정책이었다. '국책의 기준'은 일본, 만주국, 중국의 연계를 통한 경제발전, 남방 진출, 육해군 군비의 기준을 나타낸 것으로¹³⁾ '제국외교 방침'은 중국의 일본에 대한 태도 시정, 미일 친선, 영국을 이용한 대소, 대중 정책 확립 등을 나타낸 것이었다¹⁴⁾. 워싱턴, 런던 해군 군축조약이 1936년 말일 실효를 거두자 해군은 오랜 현안이었던 군축조약체제에서 이탈한 셈이지만, 그로 인해 곧바로 해군의 태도가 영미 대결 자세로 바뀐 것은 아니었다. 나가노 오사미 해상(海相)은 해병 동기인 기타카라후토 석유의 사촌지 세이조 사장에게 「표면상 대미 작전이

10月2日

7) 國際情勢に對する國防上の所見」(「齋藤實關係文書」167-2、國立國會圖書館憲政資料室)

8) 1931年3月24日御前講話資料「日華航空關係ニ關スル件」(「滿蒙及北支那ニ於ケル本邦航空事業關係一件」、外務省外交史料館、F.1.10.0.7)

9) 「米國航空勢力ノ對支進出阻止ト我勢力扶植ニ就テノ方策」(「對支雜俎其ノ一(昭和9年)天羽聲明」、島田俊彦文書32、東京大學社會科學研究所圖書室)

10) 「對支時局處理方針」(「支那關係經緯(昭和11年)」島田俊彦文書86、東京大學社會科學研究所圖書室)

11) 「對支時局處理方針覺」(「支那關係經緯(昭和11年)」)

12) 原田熊雄述『西園寺公と政局』第五卷(岩波書店、1952年)168page

13) 「國策ノ基準」(「帝國ノ對支外交政策關係一件」第六卷、外務省外交史料館、A.1.1.0.10-006)

14) 「帝國外交方針」(「帝國ノ對支外交政策關係一件」第六卷)

나 대영 작전을 한다고 해도 실은 영국 미국과는 가능한 한 충돌 없이, 가능한 한 연계하는 상태이고 싶다」¹⁵⁾고 말하였고 후시미노미야 히로야스 왕은 주영대사로 부임한 요시다 시게루에게 '일영 해군은 메이지의 첫 영국 해군의 지도를 받은 이래 전통의 친선관계를 맺고 있으며 지금도 우호관계를 지속하고자 한다'¹⁶⁾라고 말한 것과 같이 적어도 1936년 단계에서 해군은 군축조약 체제 이탈로 인해 험악해진 영미 관계를 복원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 문제에 대한 국제 정세 판단에 있어 해군은 영미의 대일 태도를 엄중히 받아들였다. 정보수집을 담당하는 군령부 제3부가 1936년 10월 9일에 작성한 '중일관계를 중심으로 본 정세판단'¹⁷⁾이라는 문서에서 '일본의 대륙정책에 대한 미국의 태도는 일본의 행동을 이유로 9개국조약 유린이라고 보고 있으며 미국의 이 태도는 만주 사변 이래 일관 불변', '미국이 그 근본적 태도를 변경할 것이라고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현상'이라고 하며 중국 문제를 둘러싼 미일관계는 여전히 긴장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영국에 대해서도 '미국과 협력 9개국 조약을 방패로 신랄한 간섭과 준열한 여론 공격을 받아내고 소연방을 피어 북방의 위협을 가하는데 노력하는 것으로 해아린다', '미국과 소련과의 보조정 또는 9개국 조약 관계국을 규합하여 경제제재 등을 세우고 최대한 일본의 행동을 견제하는데 노력해야 한다'라고 밝혀 미국보다 한층 엄격한 대일태도를 보이고 있다 판단했다. 해군이 영미와의 관계에서 긴장 완화를 원하면서도 중국 문제의 현안이 해결되지 않는 한 영미 관계의 복원은 바랄 수 없다는 것이 1930년대 중반 동아시아 국제 정세였던 것이다.

3. 중일 전쟁의 발발과 일본 해운의 대응

1937(쇼와 12년)년 7월 7일 루거우차오 사건이 발발하자 9일 각의에서 스기야마 하지메 육상(陸相)은 육군 3개 사단의 파병을 주장했으나 요나이 미쓰마사 해상(海相)은 파병이 전면전이 될 위험성, 국제정세에서 일본이 불리한 입장에 내몰릴 가능성을 지적하며 반대한다¹⁸⁾. 그러나 군령부 제1부 전쟁지도반장 요코이 다다오 대령이 '해군으로서는 사태의 확대를 바라지 않더라도 중국에 가득 차야 할 항일 기분에 대해 경비상 유감이 없도록 하기 위해 현재의 경비는 사태가 판별될 때까지 이를 늦추지 않고 속행해야 할 것으로 믿는다.'¹⁹⁾라고 밝혔고 해군성 군무국원·다카기 소키치가 '양 국 공기의 험악함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작년 가을에 긴장기에 들어갔으며 육군 분위기는 그대로다'²⁰⁾라는 일기를 쓴 것 등, 해군 내부에는 중국에 대한 불신감이 뿌리 깊게 깔려 있었다. 그리고 8월 9일 상하이에서 오야마 이사오 해군 중위와 수병 1명이 중국 보안대에 의해 사살되는 사건이 발생하자 해군의 강경 자세는 표면화되었고, 제2차 상하이 사변 발발 직후인 14일 각의에서는 소련전을 위해 중일 간 군사 충돌을 확대하는 난징 공략에 주저하는 육군에 대해 미 내 해상이 난징 공략을 강경하게 주장하여 중일 전면 충돌이 발생한 한 가지 원인을 만들었다.

한편, 중일 간 군사 충돌 시 미국 측의 태도에 대해 해군 내부에서는 부서 간의 차이가 발생했다. 8월 23일 중국 측이 미국에 특사를 파견하려는 움직임이 있음을 감지한 해군에서

15) 『西園寺公と政局』第五卷、96page

16) 軍事史學會編『海軍大將嶋田繁太郎備忘録・日記』第一卷(錦正社、2017年)昭和11年5月4日 이하『嶋田日記』로 축약

17) 「日支關係ヲ中心トスル情勢判斷」(「支那關係経緯(昭和11年)」)

18) 「蘆溝橋事件」(『嶋田日記』101~102page)

19) 「情勢判斷七月十二日朝現地協定調印ノ報ニ對シ(一二、七、一二)」(「支那事變處理」防衛省防衛研究所、②戰史一支那事變—159)

20) 伊藤隆編『高木惣吉日記と情報』上卷(みすず書房、2000年)昭和12年7月22日

는²¹⁾ 요코이 다다오를 중심으로 일본도 미국에 특사를 파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요코이는 미/영/소의 동향을 경계하고 있었지만, 미국만은 중국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희박하기 때문에 외교를 통해 일본에 대한 태도를 완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다²²⁾. 최종적으로 마쓰카타 고지로 중의원 의원(예일대 졸업. 마쓰카타 컬렉션으로 유명)이 미국으로 건너가기로 결정되자, 9월 20일 해군은 외무성에게 '건미 특사에 대한 희망사항'²³⁾을 통지했다. 그 내용에서 해군은 미국의 태도를 '공명정대'라고 표현했다. 그러나 미주 정보를 담당하는 군령부 제3부 제5과장 오가와 간지 대령은 일본에 정치적 경제적 압박을 가하는 것은 미국이기 때문에 미국에 대한 외교공작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등²⁴⁾ 낙관적인 미국관을 전제로 특사 파견을 주장하고 있는 요코이와는 정세 판단을 달리하고 있었다. 중일전쟁 발발의 전후기에 해군의 정책 입안을 담당하는 지도부층에는 전년부터 계속되는 뿌리 깊은 중국 불신과 희망적 관측에 근거한 미국관이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와 다른 대외 정세 판단을 내리고 있던 것이 정보 수집을 담당한 군령부 제3부였다.

결론

본 원고에서는 1930년대를 통해 일본 해군의 중국 불신감, 중국에 대한 강경 자세가 증폭되고, 나아가 중국 문제를 둘러싸고 대립할 미국에 대한 해군의 낙관적인 대외 인식이 결과적으로 중일전쟁 확대의 한 요인이 되었음을 밝혀냈다. 동아시아 정세에 대한 해군의 대외 인식은 기본적으로 화중·화남 지방에서의 중국 국내 정세나 구미 열강의 동향을 통해 형성되고 있으며, 이것이 만주, 화북 정세에 주목하고 있던 육군과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해군은 태평양을 미국과의 전쟁의 주요 전장으로 규정하고 있는 관계상 미·중이 연계함으로써 화중·화남 방면에 군사적 위협이 출현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육군의 화북 분리 공작에는 비판적이면서도 화중, 화남 방면에서의 사건에 대해서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동아시아 정세에 대한 모순된 자세를 보이고 말았다.

한편으로 중일전쟁 발발 이전의 일본 해군은 군축 조약 체제에서 이탈했으나 영국과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바라는 뜻을 나타냈다. 그런 생각은 중일전쟁 발발 직후에도 변함이 없었고 그래서 해군 지도부층은 낙관적인 미국관을 바탕으로 특사 파견을 주장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해군 지도부층의 대외 인식과 정보 담당 부서와의 대외 인식에는 차이가 있었고 해군의 정보 수집·분석 능력의 한계가 있었다. 그 점 또한 중일 전쟁 확대의 요인 중 하나로 꼽을 수 있을 것이다.

(번역책임자:황우연)

21) 「八月二十三日特情」 (「支那事変處理」)

22) 「對米特派使節派遣ニ關シ意見」 (「支那事変處理」)

23) 大久保達正ほか編『昭和社會經濟史料集成第四卷海軍省資料 (4)』(大東文化大學東洋研究所、1982年) 133~136page

24) 「對米特派使節派遣ニ關シ意見」 뒤에 추가로 들어 있는 표제가 없는 문서. 제5과장 글씨와 '오가와'의 도장이 찍혀 있다.